제목: 이세계 퐁퐁남 작가 퐁퐁의 작가홈 규제를 요구합니다.

1) 내란 옹호 게시물 방치를 비롯한 네이버 웹툰의 편향적인 검열에 반대하며,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세계 퐁퐁남>은 애초부터 여성혐오적인 작품입니다. MBC, JTBC, SBS 등의 언론에서도 이에 관해 다루었으나, 네이버웹툰의 대처는 느렸습니다. 그로 인해 불매의 계기가 되어 기업으로서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왔음에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1월부터 이미 문의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웹툰 작가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도, 2달이 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 홈은 네이버 웹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변명이 최선의 조치입니까?

운영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에도, 수많은 문의를 받고도 "종북 세력, 국가 전복 세력, 페미들 목 닦고 기다려라." 혹은 서부지법에 모이라는 발언은 운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반면에 네이버페이 측이, 현재에는 파면된 윤석열의 탄핵을 지지하는 응원봉에 관해 작성된 리뷰는 발 빠르게, 4월 2일에 노출을 제안하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금일까지도 퐁퐁 작가의 작가홈은 약 2달째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중립이라도 표방하고자 하신다면, 조속히 대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해당 작품 저자의 정치적인 행보만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고, 뒤늦게 대처한 일을 우리 독자 일동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단 <이세계 퐁퐁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웹툰은 플랫폼으로서 작가와 독자를 잇는 역할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네이버는 이런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반감으로 애정하는 작품들에 정을 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불매는 지속되고 있으며 네이버웹툰의 공식적인 사과와 개선을 재차 요구합니다.